

Rosetta

일시 2023.12.08 [금] 19:30 / 12.09 [토] 14:00,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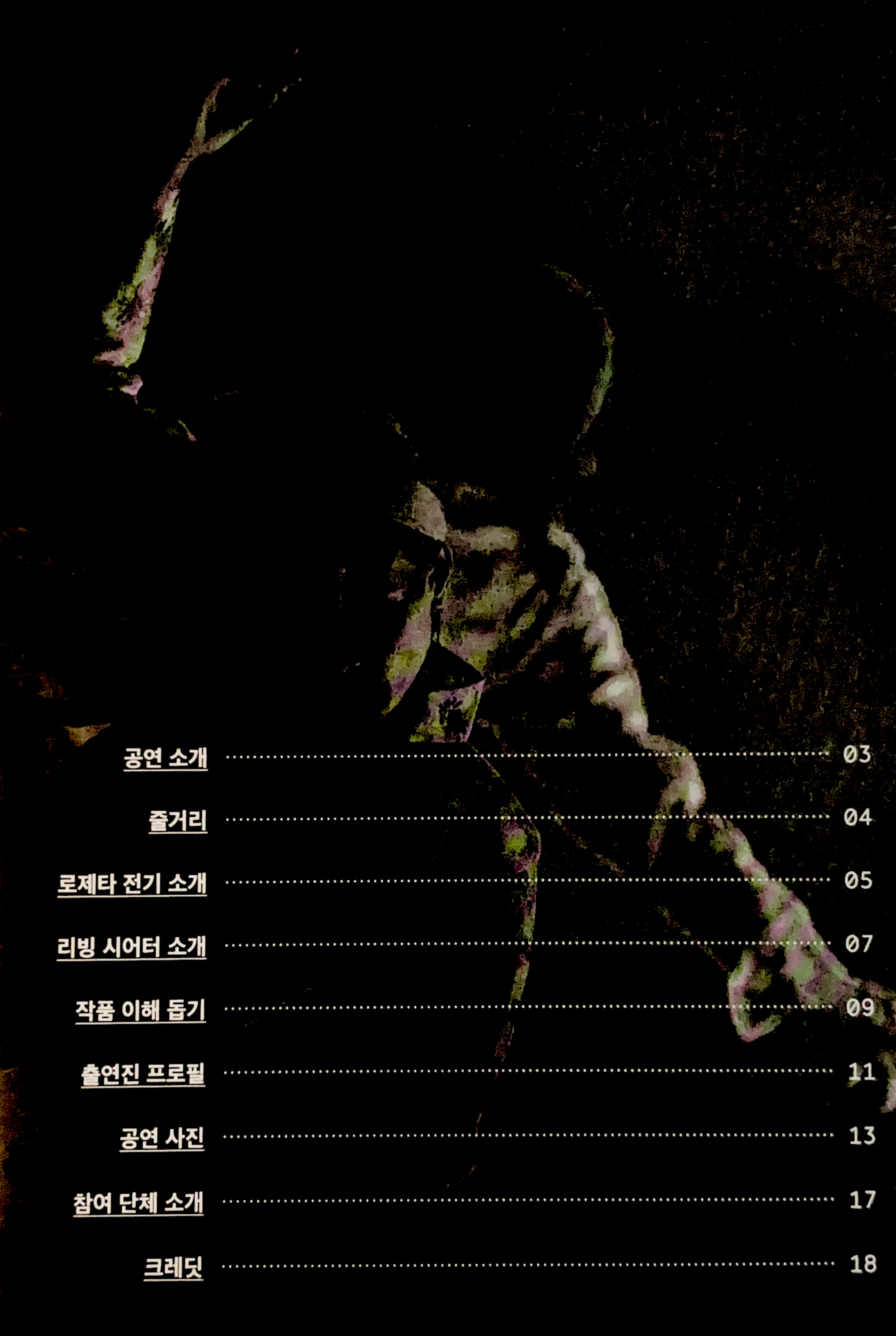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관람연령 7세 이상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 제작 주식회사 옐로밤

제작 협력 리빙 시어터, 극공작소 마방진



<u>공연 소개</u>	03
<u>즐거리</u>	04
<u>로제타 전기 소개</u>	05
<u>리빙 시어터 소개</u>	07
<u>작품 이해 돕기</u>	09
<u>출연진 프로필</u>	11
<u>공연 사진</u>	13
<u>참여 단체 소개</u>	17
<u>크레딧</u>	18

로제타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은 25살에 한국에 온 이후로 매일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기록했다. 그녀가 남긴 6권이나 되는 방대한 일기는 현재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연극 <로제타>는 이 일기장에 쓰여 있는 기록으로 작품의 서사를 시작한다.

25살 소녀가 조국을 떠나 당시 가장 가난하고 온갖 그릇된 인식으로 지배당하던 그녀의 고국과 정반대의 나라에 와서 마주한 지옥과도 같은, 어쩌면 지옥보다 더한 현실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녀의 신념과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연극 <로제타>는 선입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강렬한 소명, 노력 그리고 신념이 어떻게 개념적, 물리적인 소속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게 했는지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과 시선의 다양화로 표현하여 무대 위에서 구현하였고, 작품의 메시지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배우에게 닿는 비처럼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 공간을 관통하여 관객에게 닿게 한다.



ROSE HERWOOD HALL

“어둡고 길 모로니 나를 도와주소서”

1900년대 구한말 시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나이, 계층, 성별, 장애 등 당시 시대가 가졌던 차별과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근대 여성 교육과 의료 봉사로 생애를 보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어린 시절부터 결혼, 한국에서의 삶, 딸과 남편의 죽음 이후 고뇌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녀가 한 선택까지...

연극 <로제타>는 86년의 삶 중 무려 44년을 한국에 바치며 써내려간 6권의 실제 일기장을 바탕으로 그녀의 '순간들'을 조명한다.



로제타 전기 소개

Rosetta Sherwood Hall

1865.09.19 - 1951.04.05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평양에서 창궐한 전염병인

발진티푸스로 남편 별세. 결혼한지 2년 5개월

- 남편 윌리엄 홀의 당시 나이 34세로, 항생제 부족으로 치료 가능했으나 사망한다.
- 당시의 로제타는 둘째 임신 중이었다.
- 충격으로 로제타와 아이들, 에스더 박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하다.
- 뉴욕에서 뉴욕 점자의 개발자와 만나 한글 점자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 '조선훈맹점자 개발에 성공하다.'

1885년 펜실베이니아

여자 의과대학 입학

-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다.
- 맨해튼의 선교사 파견 본부에서 훗날 남편이 될 캐나다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다.
- 윌리엄을 통해 해외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 받다.

사대문 밖 환자들을 위해 동대문에

여성야간진료서를 개원하다

(동대문 부인병원 - 이대동대문병원의 전신)

1865년 미국 뉴욕 설리번 카운티 출생

- 뉴욕의 업스테이트 시골 마을 영국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나다.
- 1883, Oswego State Normal School 졸업, 교육학을 공부하다.
-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간 지역 선생님이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다.
- 1886, 인도 자원봉사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다.

1890년 한국으로 선교 파견

- 한국 최초 여성 병원 '보구여관'에서 곧바로 진료를 시작하다.
- 당시 여성은 병원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신분이었다.
- 첫 10개월 동안 홀로 종양 제거, 백내장 등 2359건을 진료, 처방전을 6000건 이상 발행하고,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약 80회의 왕진을 오가다.
- "의사가 악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눈을 뽑았다"는 유언비어 등, 조선인 맹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원했으나 사회적 장애물과 마주하다.
- 어릴 적 배운 뉴욕식 점자를 응용하여 점자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1889년 의과대학교 졸업

1893년 로제타의 첫째 아들 셔우드 출생

1898년, 둘째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사망

- 당시 일기내용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재울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줬다.
아이는 훨씬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그렇게 떠나갔다.'
- 그럼에도 평양에 여성 치료소 광혜여원 개원하다.
- 죽은 딸의 이름을 딴 최초의 맹학교 '에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동'을 개원하다.

훗날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은 박에스더를 잇는 간질병과 싸우기 위해

- 결핵 전문 의사로 성장,
- 결핵 치료의 재원 마련을 위해
- 크리스마스 섬을 도입한다.
- 이후 일본군에 의해
-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며
- 국외로 추방당한다.
- 이후, 인도에서 활약한다.

1910년, 박에스더, 결핵과 과로로 인해 사망하다

- 아들 셔우드 홀과 함께 슬퍼하다.
- 셔우드 홀 의사가 되기로 다짐하다.

1897년 11월, 아이들과 한국으로 귀국

- 자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고 용기를 내 다시 한국으로 오다.

1900년, 로제타의 어머니 세상을 떠나다

- 신경쇠약으로 미국 고향으로 귀국 후 요양하다.

1903년, 귀국. 다시 선교 시작

- 통역을 해주던 박에스더와 만나다.
의사로 만들기 위해 유학을 보내다.

1951년 4월 5일,

- "나의 시신을 한국에 묻어달라"는
- 유언과 함께 서거

1928년,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 이어 인천간호전문보건대학을 설립하다.



리빙 시어터(The Living Theatre)는

1947년 시인이자 화가였던 줄리언 벅과 배우인 주디스 말리나 부부가 창단한 극단이다.

'오프 브로드웨이(Off-Broadway) 운동'의 시초이자 미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실험 극단으로, 전통의 파괴와 새로운 실험이라는 두 바퀴로 진화해 현대 연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며 20세기 현대 연극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설적인 극단이다.

리빙 시어터는 아나키즘과 비폭력 저항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차별 반대, 전쟁 반대, 여성 해방 등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파격적인 표현 방식으로 발표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알 파치노, 로버트 드 니로 등 아카데미를 휩쓴 배우들이 거쳐간 극단이자, 수많은 논문과 연극사의 중심이 되는 브레히트와 T.S. 엘리엇 등의 극작가와 시인들의 원작을 무대화 시킨 바 있다.

대표작

<No Place to Hide> <Maudie and Jane>

<Capital Changes>

<Rules of Civility and Decent Behavior in Company and in Conversation>

<The Archaeology of Sleep>

<The Yellow Methuselah> <Masse Mensch>

<Prometheus at the Winter Palace>

<The Destruction of the Money Tower>



1. 한국의 관객들에게 ‘리빙 시어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리빙 시어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뉴욕에서 당시 대안 예술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음악에는 재즈가, 회화에는 추상 표현주의가 있었고, 문학계에는 비트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의 경우 대안적인 공연 형태가 없었고, 단체의 창립자인 주디스 말리나와 줄리안 벅이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운동을 이끌며 지금의 ‘리빙 시어터’가 탄생했습니다.

*비트세대(Beat Generation) : 1920년대 대공황 시대에 태어나 2차 대전을 직접 겪은 세대로, 전후 1950~1960년대 사회문화 구조에 저항했던 문학인과 예술가 그룹을 칭한다.

2. 리빙 시어터가 연극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채로 계속되는 어떤 현상과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곳에서 유용한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평화주의가 저희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이며, 비폭력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리빙 시어터는 공연을 창작함에 있어 ‘앙상블 테크닉’이라는 고유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 <로제타> 역시 ‘앙상블 테크닉’을 통해 창작되었다고 하는데, ‘앙상블 테크닉’은 무엇이고 연극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나요?

‘앙상블 테크닉’ 속에선 주연 배우가 없습니다. 모든 배우가 다른 배우들과 똑같이 중요하죠. 이 연극에서는 모두가 돌아가면서 로제타 역을 맡는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우리 모두가 로제타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관객들이 자기 내면의 로제타를 발견하고 세상으로 나가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리빙 시어터는 집단 창작, 공동 창작(collective creation or cooperative creation)으로 작품을 만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창작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 혹은 약속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람마다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려운 균형이기도 하고, 신뢰도 필요하며 구축하는 데 시간도 걸립니다. 인내심이 중요하고 천천히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경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앞으로 리빙 시어터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미래에 단체가 도전하고 싶은 예술적인 시도, 혹은 작업이 있을까요?

“더 다이어리스트 (The Diarist)”라는 온라인 프로젝트를 이제 막 런칭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미국의 예술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침체되어 있었는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단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 혹은 저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 토마스 워커 배우는 올해로 리빙 시어터에서의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계 연극사의 한 획을 그은 한 단체와, 그 주역으로서 50년간 함께 한다는 것은 토마스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적이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It means I have lived a wonderful life. It's been challenging but glorious. And It never end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시 만나는 <로제타>

김미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2023년 1월 6일, (주)옐로밤 연습실에서 기자간담회와 연습장면을 선보인데 이어 13일과 14일 양일간 ACC에서 <로제타> 시범공연이 있었다. <로제타>는 19세기 중엽 구한말 시기 조선에 파견되어 '약자들'의 권익, 특히 억압을 당연시하고 살았던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미국의 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겪었던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어려움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그녀는 서양식 문명이 너무나 일천했던 조선에서 병원을 세우고 (여성) 의료 인력을 양성했으며 장애인학교를 개교했고 한글 점자를 개발한 인물이다.

그러나 <로제타>가 흥미를 끄는 이유는 단지 로제타라는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획과 협업이 더욱 흥미롭다. ACC의 국제공동창·제작 공연사업의 일환이고 (주)옐로밤 기획에 극공작소 마방진과 미국 연극사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리빙 시어터(The Living Theatre)의 배우들이 협업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947년 주디스 말리나와 줄리안 벅이 창단한 리빙 시어터의 단원들이 <로제타>에 배우들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로제타>의 내용이 '사랑'을 실천했던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극작가들의 역사 깊은 실험실인 New Dramatists in New York의 예술감독인 토드 런던(Todd London)은 리빙 시어터가 미국연극사에서 "사랑에 기초한 연극 - 연극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사랑, 남녀 상호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성에 대한 변형과 같은 어떤 것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자신의 책 An Ideal Theatre: Founding Visions for a New American Art(New York: Theatre Communications Group, 2013)에 썼다.

연극에 이런 '사랑'을 담기 위해 리빙 시어터는 관습적인, 특히 미국에서 세력을 떨치던 사실(자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양한 형식실험, 즉 집단 창작, 액서사이즈와 즉흥으로 구성된 공연들을 했다. 그 때문에 토드 런던은 또한 "리빙 시어터보다 더 열정적인 미국 극단, 더 극단적인 실험을 한 극단이 도대체 있었나?"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리빙 시어터는 여러 책자에서 '오프 브로드웨이' 극단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창단 시기가 1940년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줄저 『브로드웨이를 넘어』에서 이 극단을 '오프오프 브로드웨이'에 속한 극단으로 분류했다. 왜냐하면 리빙 시어터는 집단 창조, 형식 실험, 관객 참여, 연기술의 수정으로 유럽 연극에까지 반향을 남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프오프'라는 용어는 아방가르드, 앙상블 극단, 환경적 극단, 극단적 작업, 게릴라 연극에서 이미지 연극까지, 즉 직선적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모든 비선형적 연극에 사용할 수 있다.

필자는 <로제타>에서 리빙 시어터가 추구했던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발견했다. 배우들이 모두 로제타이자 여러 등장인물들로 분하는 일인 다역의 형식은 새삼 실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에피소드로 엮여지는 로제타의 지난했던 삶의 편린들에 내한한 리빙 시어터 단원 3명과 한국 배우 5명이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 연기로 생명력을 부여한 점이 인상 깊었다.

리빙 시어터에서 잔뼈가 굵은 토마스 워커가 가장 연장자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배우의 열정을 보여준 것 또한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다. 1월의 시범공연보다 더욱 감동을 주는 본 공연이기를 기대한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누구인가

박정희 작가 (책 '닥터 로제타 홀' 저자)

1890년 10월 13일.

스물다섯 살의 미국 처녀 의사가 바다에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다.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겠다던 조선 여성들을 찾아온 천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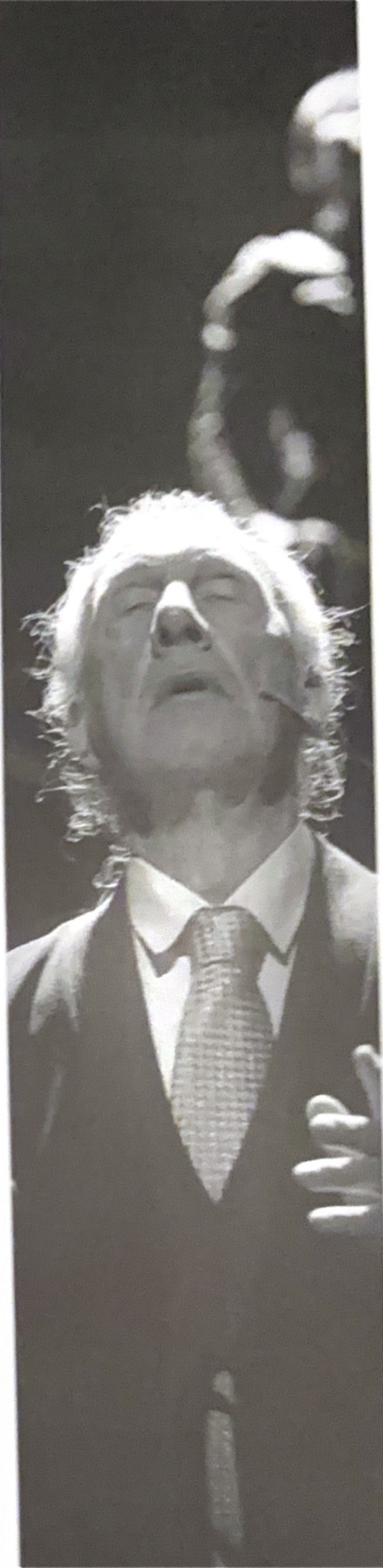
그녀는 이후 이 땅에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게 될 것이며, 사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헌신을 이어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를 길러낸 분이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의 설립자,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드신 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교육을 시작하신 분, 이화대학병원의 기초가 된 동대문의 볼드윈진료소, 평양의학대학 병원의 기초가 된 기흥병원과 광혜여원의 설립자라는 점 이외에도 이분에 대해서는 놀랄만한 사실이 끝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그저 그때그때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서였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 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 준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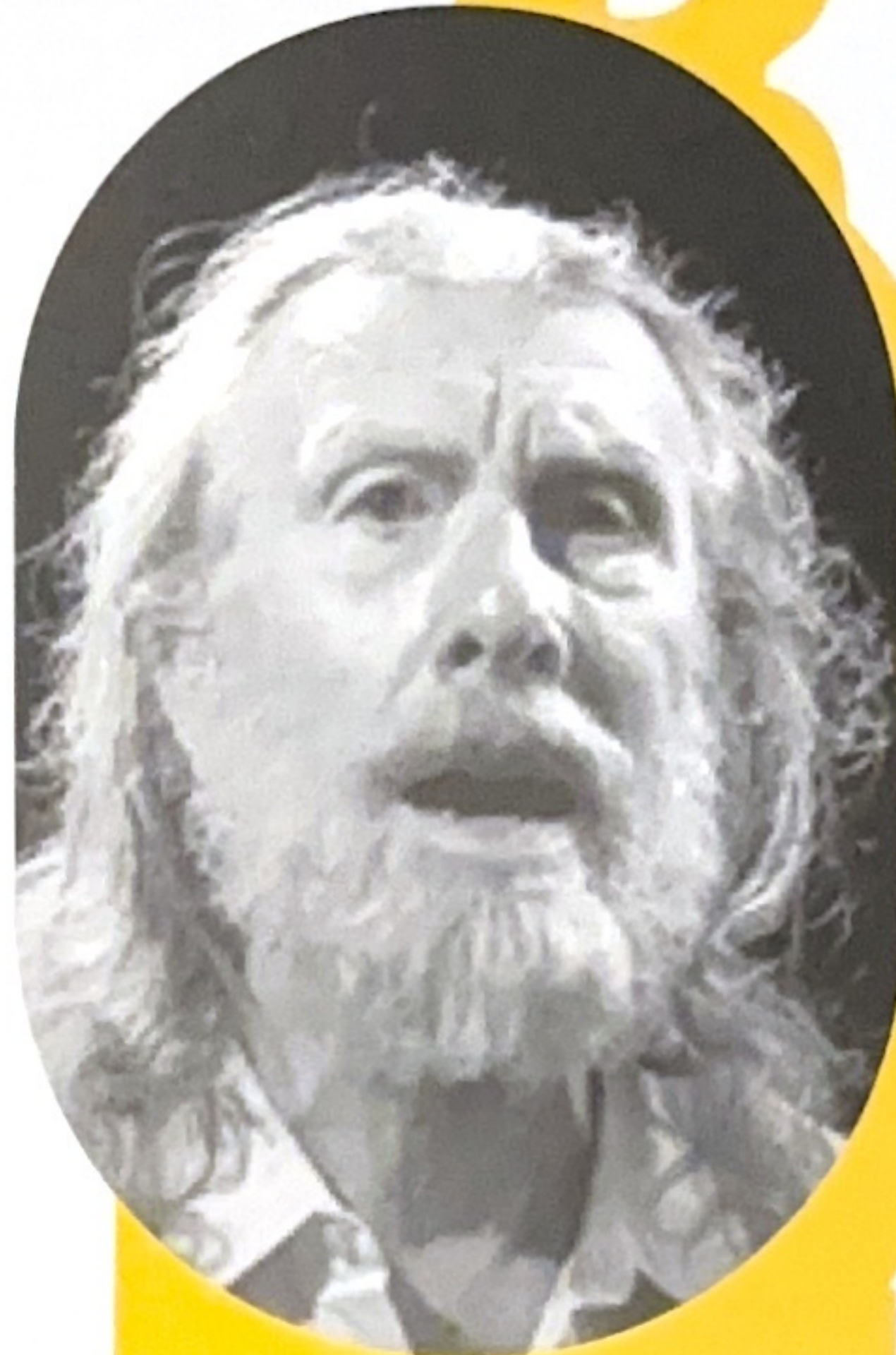
그녀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녀가 베풀었던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것은 그녀가 간직했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오늘도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한다.





브래드 버지스
BRAD BURGESS



토마스 워커
THOMAS WALKER



권민성



엠마 수 해리스
EMMA SUE HARRIS



이경구



이소연

ROSET
SHERWOOD
A



권민성



원경식



이소연



김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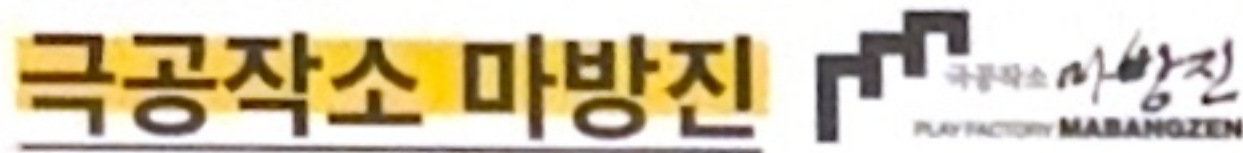
참여 단체 소개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국제 교류 커리어와 문화 정체성을 경험해 온 기획자와 창작진들이 함께 모여 서울과 뉴욕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복합문화기업이다.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공연, 행사 기획 및 제작, 운영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글로벌 기획 제작사로 거듭나고 있다.



1947년 줄리안 벡과 주디스 말리나가 시작한 미국 오프 브로드웨이의 시작을 만든 전설적인 극단으로서, 세계 연극사 중 현대연극의 한 챕터가 리빙시어터로 조명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다. 알 파치노, 로버트 드 니로 등 아카데미상을 휩쓴 배우들이 거쳐간 극단이며, 수많은 논문과 연극사의 중심이 되는 브레히트와 티에스 엘리엇 등의 극작가와 시인들의 원작을 무대화 시킨 바 있다.



극공작소 마방진은 2005년 작가 겸 연출가인 고선웅이 창단한 극단이다.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레퍼토리 시어터를 지향하며, 대표작으로는 <회란기>, <나는 광주에 없었다>, <낙타상자>, <리어외전>, <화류비련극 흥도>, <라빠르트망>, <칼로 막베스>, <들소의 달> 등이 있다. 마방진은 숫자의 합이 사방으로 일치하는 정교한 진법을 뜻한다. 배우의 감성과 편차에 상관없이 그 전체의 합은 늘 같아야 한다고 믿는 신념을 담고 있다.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 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Movement)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 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참여한 사람들

출연	Brad Burgess 브래드 버지스 Thomas Walker 토마스 워커 Emma Sue Harris 엠마 수 해리스 견민성 원경식 이소연 이경구 김하리
연출/극작 조연출	Yossef K. Junghan 김정환 손지은 김형국
음악	장도혁 (퍼커셔니스트) 빅바플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
무대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블랙덕 곽용민 양우진
음향 음향감독 음향크루	마스터아웃 노익환 임태훈
조명 조명감독 팔로우 오퍼레이터 조명크루	블루웨이 강상민 신지호 이동수 김경은 김민석 김형욱
무대디자인	김상민
무대제작 제작기술감독 제작감독	드림아트컴퍼니 (주) 김희진 이상우 김용선
제작팀	장하다 남정수 김경민 권송하
무대작화 작화감독 작화팀	작화공간 이남련 이정숙 김재형
의상제작 의상디자인 의상진행	씨엔엘 이시내 양지은
분장디자인	석필선

총괄 프로듀서	이영찬 고강민
프로듀서	이준형
프로덕션 매니저	조현서 이근재
기획	김진아 김효진
국제교류	Andrea Paciotto Katie Kim
홍보	북극성
디자인	스튜디오 오켄스

Special Thanks to 김미혜 교수
박정희 작가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제작 주식회사 옐로밤
제작 협력 리빙 시어터 극공작소 마방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강현
공연사업과 과장	박상희
공연기획 총괄 공연기획	정승재 김종원 양수연 정하나 이소영 문정인 양하정
공연운영/관객개발	박지수 조혜진 최세영
무대기술 총괄 무대	임종민 박성용 김평강 임지은 김선진 이동빈 백용민
조명	임혜영 문성재 범서인 정영록 이성호 조양훈 김한솔
음향	김학수 나인권 박지연 김왕민 김주희 정인범 김강산
영상	조영래
행정 하우스어서	박인례 이문신 김다현 김도연 김민아 김송은 김수정 김예은 김지혜 류여진 박성빈 박채린 박현진 백지은 손대현 신지민 심가령 양수경 유귀인 유지혜 윤고은 이해름 전효우 정예린 최지혜 황상희

관람객 만족도조사 QR



Rosetta